

# 전후세대의 복지의식

최 일 섭\*

<目次>	
I. 머릿말	(1)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
II. 복지의식의 분석틀	(2) 국가의 복지이념에 관한 모델
1. 복지의식의 개념	III. 전후세대 복지의식의 좌표
2. 복지의식에 관한 모델	IV. 맷는 말

## I. 머릿말

한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형태, 경제적 발전 정도, 사회·문화적 배경,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가치의식에 의해 형성되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따른 국가의 전통과 상황이 다른 만큼, 각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도 다를 수 밖에 없다.

6·25 동란 이후 근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인 변화는 과거 수천년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것으로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 변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경제적 상황이 주요한 변수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영향을 주고 받는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복지제도의 속성을 ① 인간이 만들어 낸 사회제도의 하나이고, ② 사회성원의 복리를 추구하고, ③ 사회성원의 복리는 그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증진되고, ④ 사회복지는 인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제반 시책과 노력을 포함하며, 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수

\* 서울大 社會大, 社會福祉學

단이라고 설명한다면(최일섭, 1985:18), 이에 대한 국민들의 공통된 견해가 어떠하나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특히 6·25 동란 이후 출생하여 정치적,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성장해 온 이른바 전후세대들의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과 이것을 해결하려는 데 대한 그들의 의식구조는 戰後世代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훗날 우리나라가 지니게 될 사회복지제도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후세대들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선조들의 숙명적인 복지의식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화해 있는가? 전후세대들은 빈곤, 질병, 일탈 행동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발생원인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개인적 책임과 사회구조적 책임을 달리 강조하고 있는가? 전후세대들은 사회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 집단, 계층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들 스스로의 노력과 국가·사회적 노력을 달리 강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로 표현될 수 있는 전후세대들(청년근로자, 대학생, 초중고 등학생 등)의 복지의식과 이념을 파악하고, 이러한 의식과 이념이 정치·경제·사회적 변동과 함께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가를 조망해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갖추게 될 사회복지제도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복지에 대한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전후세대를 규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엄격히 말하면 전후세대는 35년이라는 1世代에 걸친 대규모의 인구집단으로서, 이 집단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이들 집단의 의식과 이념을 대표하는 속성을 규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로, 한 사회의 의식과 이념은 시대적으로 확연히 구획지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후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 세대는 전전세대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전전세대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의식과 이념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의식과 이념의 변화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6·25이후에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도 6·25라는 민족사의 비극에 못지 않게 국민들의 의식과 이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복지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이고 타당한 개념이 명확히 규

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지만, 복지의식과 이념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따른 시각에 따르기도 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시장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해야 하느냐에 역점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정치의식, 경제의식과 구별되는 사회의식의 일부로 취급하기도 한다.

네째로, 전후세대의 복지의식을 논함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어려움은 복지의식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크게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 연구들도 時系列의인 분석이 곤란할 정도로 최근의 경향에만 치중해 있고, 앞에서 지적한 상이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어서 비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후세대들은 전전세대와는 일반적인 가치의식과 이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학계와 사회일반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후세대의 복지의식도 기성세대의 복지의식과는 어렵겠으나마 구별될 수 있으리라는 가정하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고,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비교·분석하며, 이들의 복지의식이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인지를 예측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 II. 福祉意識의 分析틀

### 1. 福祉意識의 概念

「복지의식」은 한마디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의식이라 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의식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가치의식에 대한 개념이 먼저 규정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해서 Romanyshyn의 정의가 가장 적합한 듯하다. 그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포함하며,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을 포함한다. 또 사회복지는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Romanyshyn,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Romanyshyn,

1971:3)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란 것이 인간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가치의식에 대한 개념은 사회복지라는 개념보다 개념규정이 더욱 어렵다. 가치관에 대해서 鄭範謨교수는 “인간문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정법모, 1977:17)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朴容憲교수는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전승된 사회생활의 규범적 원리와 선악시비를 판단하는 평가적 표준이나 구성원 개인의 학습과정을 통하여 내면화된 심리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규정해주는 동기적 기능을 가지며… 가치관은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성격 및 다른 심리적 특성들에 내면화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거나 외국의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거나 하지 않고 비교적 오래 지속하게 된다.”(박용현, 1982:88-90)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가치의식이 정의되고 있으나, 본 논문과 관련하여 가치의식이란 사회성원의 행위와 사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방향을 부여하는 사상체계로서 상황에 대한 인지, 태도, 평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가치의식의 개념으로부터 복지의식이란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사회성원들이 지니는 포괄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의식, 경제의식과 마찬가지로 복지의식이라는 개념에도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배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로서의 복지의식(이념)은 적어도 다음 네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란 신념체계로서 사회적 상황을 보는 방법이며, 일단의 생각과 개념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데올로기에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체계적인 왜곡(systematic distortion)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이러한 왜곡은 무의식적으로 의도되지 않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네째로 이러한 현실상황에 대한 왜곡은 비록 비의도적(unintentional)이라고는 해도, 이데올로기는 특

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현상을 유지하거나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지닌 복지의식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한 엄밀성보다는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좋다—나쁘다”, “바람직하다—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가치성향을 지니며, 계급 혹은 계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 Wright Mills는 일찌기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문제”, “사회병리” 및 “사회해체”에 관한 31권의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고는 미국의 사회병리학자들이 사회문제의 원인으로서 전체적인 사회구조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를 규정하고 해체의 원인을 찾음에 있어서 사회의 기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규범에 대한 일탈(deviation)을 중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이 계급이익(class interest)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Mills, 1943:165-180).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문제에 관해 가치중립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sup>(2)</sup> 하물며 사회문제를 보는 일반인의 시각과 이의 해결에 대한 요구는 다분히 가치지향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복지의식(이념)에 관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model)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의 좌표를 논하는 준거로 삼고자 한다.

## 2. 福祉意識에 관한 모델

### (1)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

Wilensky와 Lebeaux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서 「殘餘的(residual)」개념과 「制度的(institutional)」개념을 들고 있다(Wilensky and Lebeaux, 1965). 잔여적 개념 하에서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의 정상적인 공급원으로서의 가족과 시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이라 보는 반면에, 제도적인 개념 하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이고 우선적인(first line) 기능이라고 본다. 잔여적인 개념 하에서는 사

(1)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서는 Johnson, 1968:76-85; Shills, 1968:66-76; Feuer, 1975 등을 참조할 것.

(2) 대표적인 예로서 Cohen (ed.), 1964; Spiegel, 1969 등을 참조할 것.

사회복지는 가족과 경제제도가 불안정할 때, 이를 제도를 보충,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제도로서 흔히 “시혜(dole)”와 “자선(charity)”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도적인 개념하에서의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모든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욕구를 당연시하고, 이를 돋는 사회사업기관들은 정상적인(regular) 사회적 직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념적인 면에 있어서 참여적인 개념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도적인 개념은 “산업화에 따른 철저한 사회적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Wilensky와 Lebeaux의 전술한 이념관으로부터, Ryan은 사회문제의 분석과 해결의 이념적 토대로서 「예외주의(exceptional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를 들고 있다(Ryan, 1969). 예외주의적 이념관에 의하면 사회문제란 특정범주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규범에 비추어 본다면 다분히 예외적이고 개인의 결합, 사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자연 개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보편주의적 이념관에 의하면, 사회문제란 사회체계가 불완전하고 불공평한데서 발생되며,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며, 문제가 어느 계층의 개인들에게만 특유하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Ralph Pumphrey는 사회복지 분야의 두 가지 이념관(동기)으로서 「동정(compassion)」과 「보호(protection)」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Pumphrey, 1959:21-22).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계층의 고통, 빈곤이나 기타 바람직스럽지 못한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의미하며, 그들이 주는 도움이란 “문제의 예방에는 관계없이 명백한 현상치료를 위한 적절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보호」라는 개념은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뿐 아니라 전 지역사회를 위해 불리한 현상을 예방하려 하는 것으로서, 이는 만일 현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며, 동정의 필요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사회복지의 기능과 관련한 이념관의 비교는 Clarke Chamber의 「개별화된 치료(individualized treatment)」와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ion)」이라는 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다(Chambers, 1962:51). 치료라고 하는 것

은 “수단이나 기술이나 전문성에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하에서의 개인이 그의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며, 정치적 행동이란 “집단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개혁이나 재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C. Wright Mills는 「개인적인 문제(troubles)」와 「공적인 문제(issues)」를 구분하고 있다(Mills, 1959). 그에 의하면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이의 해결은 그 문제에 처한 사람 자신이나 직접적인 환경의 개선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공적인 문제는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이나 내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생기는 문제로서 사회제도나 구조적인 면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사회문제의 원인과 이의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기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개념들은 다시 「미시적 이념관(microscopic orientation)」과 「거시적 이념관(macrosopic orientation)」으로 묶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前者는 <잔여적 개념, 예외주의, 동정, 개별화된 치료, 개인적인 문제> 등의 속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사회문제가 개인이나 특수집단의 결합이나 불행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원조나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견해이며, 後者(거시적 이념관)는 <제도적 개념, 보편주의, 보호, 정치적 행동, 공적인 행동> 등의 속성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사회문제란 사회구조나 제도상의 결함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주어진 사회체제 내의 무엇인가를 변경내지는 재조정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최일섭, 1979:1-8).

## (2) 국가의 복지이념에 관한 모델

사회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쳐방하는 시각은 점차 국가의 기능과 관련한 복지이념에 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Richard Titmuss는 Wilensky와 Lebeaux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한 이분법적인 복지이념에 최초로 수정을 가하였다. 그는 「잔여적(residual)」, 「산업적 성취 및 업적(industrial achievement-performance)」, 그리고 「제도적 재분배(institutional redistribution)」와 같은 삼분법의 모형을 소개 함으로써 (Titmuss, 1974), 지금 까지 복지이념에 관한 이분법이 안고 있는 과대 단순화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Titmuss의 삼분법은 Parker에 의해 「자유방임(laissez-faire)」, 「자유주의

(liberal)」, 그리고 「사회주의(socialist)」형이 라는 명칭으로 재확인되었다(Paker, 1975). 자유방임형은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장을 통한 경제성장과 모든 계약과 합의에 있어서 자유선택을 강조하는 복지이념이다. 이 모형 하에서 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minimum intervention)하여, 국가에 의한 빈민의 구제, 부의 통제를 거부하며 모든 문제를 시장체계와 개인의 구매능력 및 생산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빈곤문제에 관해 절대적 빈곤개념을 강조하여 빈곤은 개인적인 결함이나 인간의 힘을 넘어서 초자연적(운수)인 것이 그 원인이라고 간주한다.

자유방임형과 대조적인 것으로 사회주의형은 평등의 가치와 공통의 권리 를 강조한다. 빈곤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며, 이의 해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수준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 한다. 소득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구매력과 생산력에 따른 분배보다는 욕구에 기초한 분배를 강조한다. 빈곤뿐 아니라 모든 사회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자유주의형은 자유방임형과 사회주의형의 중간형태이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 시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방임형의 견해에 동조하나, 상대적 빈곤개념에 근거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자의 견해에 가깝다. 이 이념 하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국가의 무차별적인 서비스(universal state provision)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것이다.

삼분법의 복지이념으로부터 세분화하여 사분법의 복지모형이 George & Wilding (1976), Mishra (1977), Room (1979) 등에 의해 주창되기도 하였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분법상의 복지이념은 그 명칭이 다양하나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등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김상균, 1987:105-132), 이를 정리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김영모교수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Wilensky와 Lebeaux, Parker의 모형을 결합하여 ① 자유방임형, ② 보완적 자유주의형, ③ 제도적 자유주의형, ④ 사회주의형을 구분하고 있는데(김영모, 1980), 이

〈표 1〉 복지이념의 모형

연도	제작자	이념의 연속선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1958	윌렌스키&트보	잔여적		제도적	
1971	핀커	잔여적		제도적	
1972	도니슨	이성적-경제 지향성 우파		감성적-사회지향성 좌파	
1974	티트머스	잔여적	산업적 성취 및 업적	제도적 재분배	
1975	파커	자유방임	자유주의	사회주의	
1976	버터워스&홀만	잔여적		제도적	
1976	죠지 & 월딩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1977	미쉬라	잔여적	제도적 (자유주의)	규범적 (사회민주주의)	
1979	룸	시장자유주의	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자료 : 김상균, 1987:113

는 극좌에 해당하는 마르크스형이 포함되지 않아 달리 구분되고 있다.

### III. 戰後世代 福祉意識의 座標

1970년대 以來 戰後世代, 特히 青少年들의 價值意識에 관한 實證적인 연구는 枚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의식의 영역으로서는 ① 自畫像 혹은 自我概念, ② 家族觀, ③ 長幼有序觀, ④ 職業觀, ⑤ 人生觀, ⑥ 交友觀, ⑦ 異性觀, ⑧ 國家 및 安保觀 등에 관한 것 들이다(최일섭, 1985:193-213).

그러나 앞 章에서 살펴 본 복지의식 혹은 복지이념의 모형에 적합한 전후 세대의 복지의식에 관한 實證的인 究研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첫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金泳謨 교수의 연구(김영모, 1985:3-34), 둘째,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金尚均 교수의 연구(김상균,

1985:87-113), 세째, 勸勞青少年을 대상으로 한 한국복지정책 연구소의 研究(한국복지정책 연구소, 1985:87-113), 그리고 마지막으로 社會事業家를 대상으로 한 本人의 연구(최일섭, 1985:193-213) 등이다. 이들 연구들은 복지의식을 「社會福祉 및 社會問題觀」, 「社會福祉 理念」, 「福祉意識」 등 다양하게 지칭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을 위시한 중요한 사회문제의 파생 원인과 이에 대한 개인 및 국가적인 책임에 관한 의견, 인지, 태도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표 2> 참조),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이 어떠한 가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주요 發見點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표 2> 青少年의 福祉意識에 關한 實證的 研究들

연구자 (年度)	調査對象 및 標本數	調査領域	理念 및 意識模型
김영모 (1985)	국민학생(5·6年) 중 학 生(1~3年) 고등학생(1~3年) 總 8,281名	① 社會問題觀 —青少年 非行 —不平等 —地域社會解體 —家族解體 ② 社會福祉觀 —貧困 一保健 —失業 一教育	보수적 진보적
韓國福祉政策 研究所 (1985)	工團勤勞青少年 2,772名	福祉意識 —빈곤 책임 一의료 책임 —실업 책임 一교육 책임	개인적 사회적
김상균 (1985)	서울시내 5個 4年制 大學 1學年·4學年 總 852名	① 빈곤문제 ② 의료문제 ③ 주택 및 토지 ④ 실업문제 ⑤ 청소년, 노인, 장애 자복지 ⑥ 교육 ⑦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 ⑧ 사회가치 ⑨ 사회개혁 ⑩ 사회복지예산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최일섭 (1977)	사회사업가 309名	빈곤 문제	미시적 거시적

첫째, 일반적으로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은 「보수적」이기 보다는 「진보적」이고, 「미시적」이기 보다는 「거시적」이며 「右派的」이기 보다는 「左派的」인 성향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후세대들은 사회문제나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고 충족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전후세대들의 이러한 진보적인 성향은 全國民의 福祉意識에 관한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복지모형에 있어서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自由放任型을, 그리고 그것이 낮을수록 制度的 自由型을 나타낸다”(김영모, 1980: 53)고 지적함으로써, 전후세대가 戰前世代에 비해 진보적 내지는 사회주의형에 접근하는 복지의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은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각각 27.7%와 25.1%로 별 차이가 없고 중도적인 성향이 42.3%로서 나타나고 있다(<표 3>). 한편 이들 청소년 집단의 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역시 중도적인 성향이 45.4%로서 가장 우세하나 보수적인 성향(20.%)

&lt;표 3&gt; 초·중·고등학생들의 社會問題觀

문제 영역	책임 소재		
	개인(가족)	개인+사회	사회(국가)
범죄 및 비행	38.2%	46.6%	9.8%
지역·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	6.6%	39.1%	48.9%
가족 해체(이혼·별거 등)	51.9%	35.8%	8%
지역사회해체(영세민촌 형성 등)	13.9%	47.6%	33.6%
平 均	27.7%	42.3%	25.1%

&lt;표 4&gt; 초·중·고등학생들의 社會福祉觀

복지 영역	책임 의 소재		
	개인(가족)	개인+사회	사회(국가)
빈곤	25.8%	54.7%	14.1%
실업	14.0%	39.2%	42.4%
보건	13.2%	44.1%	38.4%
교육	26.8%	43.7%	24.9%
平 均	20.0%	45.4%	30.0%

보다는 진보적인 성향(30.0%)이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표 4〉). 근로 청소년들의 경우는 보수적인 경향과 진보적인 경향이 각각 34.2%와 35.9%로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표 5〉). 대학생들의 사회복지부문에 따른 복지의식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道左」가 지배적인 성

〈표 5〉 근로청소년들의 社會福祉觀

복 지 영 역	책 임 의 소 재		
	개인(가족)	개인+사회	사회(국가)
빈 곤	41.0%	31.6%	22.1%
실 업	22.0%	33.6%	39.0%
보 전	26.4%	19.0%	49.2%
교 육	47.5%	14.4%	33.2%
평 균	34.2%	24.7%	35.9%

〈표 6〉 福祉部門別 大學生의 福祉意識

부 문	평 균 점 수*	이 념
복 지 예 산 곤	3.507	극 좌
사 회 개 혁 료	3.025	
의 청소년·노인·장애인 사 회 자 복 지 부 주 체 교 육	2.981 2.920 2.799 2.757 2.615 2.402 2.281 2.169	중 도 좌 우

\* 1~1.75 극우, 1.76~2.5 중도우, 2.51~3.25 중도좌, 3.26~4 극좌

〈표 7〉 貧困問題에 대한 社會事業家들의 理念觀 (單位 : %)

복 지 이 념	남	여	계
매우 미시적	5.6	7.7	13.3
미시적	8.7	12.3	21.0
중간	6.2	9.7	15.9
거시적	14.9	9.2	24.1
매우 거시적	12.8	12.8	25.6
계	48.2	51.8	100.0

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사업가들(거의 전후세대에 해당되는 25~35세)의 빈곤문제와 관련된 복지이념은 미시적인 성향이 34.3%이고 거시적인 성향이 49.7%로서(〈표 7〉), 대학생 집단과 함께 진보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있다.

세째, 대상집단과 관련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복지의식에 있어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이 뚜렷해진다는 사실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서 附言할 점은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중도적인 성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배적인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복지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네째, 복지의식은 사회문제의 성격이나 사회복지의 영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범죄 및 비행” 그리고 “가족해체현상(이혼, 별거 등)”의 문제는 그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는 보수적인 의식이 강하며, “지역이나 계층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사회해체현상(영세민촌의 형성 등)”은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 돌리려는 진보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 초·중·고등학생들과 근로청소년들 모두 실업문제와 보건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가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빈곤의 해결과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두드러지는 것은 복지에 관한 극단적인 정부책임과 개인책임을 주장한 학생의 비율이 각 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은 性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며, 대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좌편에 서 있으며”, 사회사업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거시적인 복지이념관을 지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섯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의 가치관과 이념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大學生은 “父의 경제적 수준에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右傾化하고, 父의 교육수준에서는 학력 無와 대학 이상의 고학력, 즉 양극단이 국출, 중졸 및

고졸과 같은 중위권 교육수준에 비해 右傾化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한편 사회사업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父의 교육수준, 父의 직업수준(上·中·下), 가정의 月所得 수준(上·中·下)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변수로 했을 때, 父의 교육수준은 복지이념의 性向을 결정지워주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父의 직업에 있어서는 下位職業(농부, 노동자, 영세농 등)과 中位職業(大農地 소유자, 사무직, 상인, 하위직 공무원 등)의 가정적 배경을 지닌 사회사업가가 上位職業(전문직, 관리직, 고위직 공무원 등)의 가정적 배경을 지닌 사회사업가들에 비해 훨씬 거시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사회사업가들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시절”的 월평균 소득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中·下位 水準의 가정환경에서 지냈던 사회사업가들이 고소득 수준의 가정환경을 배경으로 한 사회사업가들에 비해, 더욱 거시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상 두 가지 조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미시적(右傾的, 혹은 保守的) 性向을 지니게 되고, 반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거시적(左傾的, 혹은 進步的) 성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宗教와 관련하여 대학생과 사회사업가들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종교가 복지의식의 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덟째, 出身地 및 成長地와 관련해서는 도시출신의 청소년들이 농촌출신의 청소년들보다 다소 진보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지역·階層 간의 經濟的 不平等”이나 失業 등의 問題와 關聯해서는 湖南地域 출신의 청소년들이 “政府의 責任”을 強調하는 傾向이 뚜렷한 것으로 報告되었다.

#### IV. 맷 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學者들에 의해 提示되었던 福祉意識에 關한 모델들을 틀로 하여 行해졌던 實證的研究를 土臺로 戰後世代들의 복지의식의 座標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研究들이 使用하고 있는 多樣한 福祉意識模型과 尺度는

때문에 比較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戰後世代들이 지니고 있는 복지의식의 일반적인 傾向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즉, 모든 연구에서 共通的으로 指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戰後世代들의 복지의식이 戰前世代 혹은 既成世代에 比해 多少 進步의이고 左傾化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戰後世代들의 이러한 복지의식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혹은 바람직스러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價值判斷은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既成世代들의 視角에서 볼 때, 戰後世代들의一般的な 價值觀 내지는 복지의식이 다소 위험스러운 것으로 비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가치의식은 政治·經濟·社會적인 環境과의 관계에서 內面化되고, 環境의 變化 속에서 살아남기 爲한 機制手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念慮할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大多數의 戰後世代들이 “極右的”이거나 “極左的”인 性向보다는 “온건한 중도좌”, 혹은 對立의인 見解보다는 “中間의인 見解”를 지니고 있어서 資本主義 體制를 부정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전후세대들의 복지의식이 어떻게 变화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民主化와 先進化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이른바 先進諸國의 젊은이들이 보여주었던 가치의식에 있어서의 起伏과 平靜이, 우리나라의青少年들에게도 보여질 것이라고豫想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產業化와 都市化가 계속 進展되고 人間關係가 더욱 비정의적이고 복잡해진다면, 복지에 대한 시각도 Wilensky와 Lebeaux가 예상했던 것처럼 더욱 “제도적인 경향”을 띠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Wilensky, 1965).

#### 참 고 문 현

김상균

1985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제4호.

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모

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1985 “한국청소년의 사회관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6집.

## 박용현

1982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意識改革의 必要性과 실천방향」, 사회정화 위원회.

## 정범도

1977 “價值觀과 教育”, 「教育新書」 제 1 권, 배양사.

## 최일섭

1979 “사회문제분석에 있어서 한국사회사업가들의 가치관연구”, 「사회사업학회지」 창간호.

198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청소년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7 권 제 3 호.

1985 “사회문제분석에 있어서 한국사회사업가들의 理念觀연구”, 위의 책.

##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공단근로청소년운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연맹.

## Chambers, Clarke A.

1952 “A Historical Perspective on Political Vs. Individualized Treatment,” in Current Issues: Social Work Seen in Historical Perspective, New York: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Cohen, Nathan E. (ed.)

1964 Social Work and Social Problems, New York: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Feuer, Lewis S.

1975 Ideology and Ideologists, New York: Harper Torch Books.

## George, Vic and Wilding, Paul

1976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KP.

## Jonson, Harry M.

1968 “Ideology and Social Syste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New York: The Free Press.

## Mills, C. Wright

1943 The Professional Ideology of Social Pathologis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KLIX, No. 2, September.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 Press.

## Mishra, Ramesh

1977 Society and Social Policy, London: Macmillan.

## Parker, Julia

1975 Social Policy and Citizenship, London: Macmillan.

## Pumphrey, Ralph

1959 “Compassion and Protection: Dual Motivation in Social Welfare,” Social Service Review, Vol. 33, No.1, March.

## Romanayshyn, John M.

- 1971 Social Welfare, New York: Random House.
- Room, Graham  
1979 The Sociology of Social Welfare, Oxford: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 Ryan, William  
1969 "Community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and Professionals," Canada's Mental Health, Supplement No. 60, Mar.-Apr.
- Shills, Edward  
1968 "The Concept and Function of Ideolog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Free Press.
- Spergel, Irving A.  
1969 Community Problem Solving, The Delinquency Exampl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tmuss, Richard M.  
1974 Social Polic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Wilensky, Harold L. and Lebeaux, Charles N.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The Free Press.